미움 받을 용기를 읽고



공장관리 기술사 독서토론회

박 용규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언제인가 부터 내 남은 생애 이룰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고 지워가기 시작했다
(앞으로 한 15년 쯤 더 산다고 생각하고 있음)
그것은 나를 붙잡고 있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이었다
그것은 나를 좀더 자유롭게 했다.
즉
“ 나는 할리를 더 이상 탈 수 없다 “
“ 나는 더 이상 바위를 탈 수 없다 “
등이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것 들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했다
이 책을 읽고 비로서 그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이 책은 인간이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여야 할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산전 수전 공중전 까지 다 겪었던 추억을 소환하게 하였다.

타인과의 과제를 버려라

☞ 관계가 깨질까 봐 전전 긍긍 하며 사는 것은 타인을 위해 사는 부자연스러운 삶이다

☞ 타인을 행위의 차원이 아닌 존재의 차원에서 살펴보자 .

물위를 걷는 여자라는 소설을 쓴 신 달자 소설가의 이야기다
그녀는 병든 남편을 25년 동안 간병하며 살았다
남편은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어느 날 책상에 앉아 글을 쓰던 그녀는 문득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말을 했다
여보 비가 와요
그리고 뒤를 돌아 보았을 때 거긴 아무도 없었다
늘 있었던 침대와 남편이 없었다
그녀는 그날 남편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비로소 느꼈다
그리고 정말 슬프게 울었다고 한다.

우물물은 언제나 18도 였다

우물물은 4계절 내 18도 였다

1995년 2월에 오랫동안 해왔던 사업을(염색공장) 접었다
몇 군대 주 거래업체의 부도로 인한 연쇄 부도 였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니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다.

아무 연고도 없는 대구에 내려갔다
한참 아파트 공사가 붐을 일으키고 있을 때였다.
막노동이라도 할 생각으로 현장을 찾았는데 마침 비계공을 모집하고 있었다.
한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대학 때 바위를 탄 경험이 있어 신청을 했다.
십장이 비계를 한번 올라가 보라고 했다
다행히 아직 팔 힘은 좋아 가볍게 올라갔다.
균형 감각이 있어 어렵지 않게 좌우로 이동할 수 있었다.
당장 일을 시작하라고 했다.
“ 양 참에 물 밥 주고 팔만 오 천원 “ 보름마다 지불합니다.
즉 오전 참, 점심, 그리고 오후 참을 주고 일당 팔만 오 천원 이라는 말이었다.
함바집 밥 한끼 이 천원 할 때였다. 노가다 일당 중 가장 높은 것이 비계 공이었다.
보름 후 지급 받은 1,275,000원. 점퍼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었다. 내 자신이 대견했다.
점퍼위로 몇 번이고 쓸어보았다. 나는 더 없이 행복했다.

우물물은 언제나 18도 였다

우물물은 4계절 내 18도 였다

종업원 120명에 연 매출 80~90억을 하던 내가 그 때의 하루저녁 술값정도의 돈을 가지고 감격했다.
.
펄펄 끓는 기름 가마 솥에서 막 건져 낸 통닭을 십장은 다리를 쭉 찢어 건넸다.
커다란 머그 컵에 가득 딸아 준 소주를 단 숨에 들이켰다.
“ 서울 양반 일을 참 잘하시네”
“ 이제 해가 길어 졌으니까 좀 일찍 나와 일을 합시다.”
“ 될 수 있는 한 오전에 끝내고 오후에는 콘크리트 타설 일도 맡아서 합시다 “
“ 비계는 한대가리(1일 작업), 콘크리트 타설은 반대가리(1/2일 작업) 쳐 줍니다 “
그 다음 날 부터는 투 잡을 뛰었다.
새벽에 나와 오전에는 비계를 매고 오후에는 장화를 신고 슈트를 잡았다.
하루에 십 삼만 오 천원을 벌었다.
내가 혼자 힘으로 땀 흘려서 버는 돈은 예전에 일년에 몇 억씩 벌었던 돈보다 더 소중했다.
그렇게 2년을 지냈다.

공사가 끝나고 나는 강원도로 갔다.
노가다 중에 제일 힘들다는 댐 공사 현장이었다.

진정한 자유 란 무엇인가?

KTCR
한국기술융합연구소(주)
Korea Technology Convergence Research ltd

자유 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

댐 현장에서는 안전 관리일을 했다.
댐 현장은 외지에서 온 근로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였다
하루 세끼를 모두 제공하고 또 양 참을 주었다.
야간 작업 시 야간 수당과 야식이 제공 되었다.
나는 아침 일찍 이들을 기상 시키고, 아침 체조를 하였다
아침 식사 시간에는 한 명 한 명 밥 먹는 모습을 보며 혹시 간밤에 음주를 하였는지
검사 하였다. 음주 한 근로자는 안전모를 회수하여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대산
안전 교육장에 데리고 가 교육을 실시 하였다. (사실은 비디오를 틀어놓고 잠자게 했다)
오전에는 현장을 한 바퀴 돌고(댐 축조 주변 약 18KM 정도)
오후에는 차를 몰고 수몰지 외곽을 돌았다(약 52KM)

한 해가 다 가고 늦은 가을 무렵이었다.
수몰지 안전점검을 하고 반환 점에 차를 세우고 체크포인트에 사인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진한 향기가 풍겨 나왔다.
찾아보니 노란 국화가 한 무더기 피어 있었다.
예전에 사람이 살았던 집터였다.
사람은 떠났지만 꽃은 여전히 화사하게 피어 있었다.

진정한 자유 란 무엇인가?

자유 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

한참 향기에 취해 잉잉 거리는 꿀벌들을 보고 있는데 차안에 놔둔 무전기에서 칙칙하고
축음이 터졌다
이어서 직영 반장의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안전 주임님! 안전 주임 님 ! 감도 있으면 수신 바랍니다.
황급히 달려가 무전기를 받았다.
주임님 손님 찾아왔어요. 빨리 귀대 하세요
누가 왔을까?
아무도 여길 찾아올 사람은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다.

황급히 비포장 도로를 달려 현장 사무실로 갔다.

현장 소장 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앉아있는 여인의 뒷 모습이 보였다.
단발 머리, 긴 목, 낮 익은 모습 이었다.

그녀가 돌아섰다.
그녀였다.

진정한 자유 란 무엇인가?

KTCR
한국기술융합연구소(주)
Korea Technology Convergence Research ltd

자유 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

대구에서 일을 할 때였다
숙소에서 현장으로 가는 길 목에 제과점이 있었다.
어느 날 지나는 길에 문득 진한 헤이즐넛 커피 향기가 났다.
나는 그 향기에 끌려 제과점 문을 열었다
“ 여기 커피를 팝니까?”

단발머리 아줌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 커피는 파는 게 아니 에요. 그냥 드리는 겁니다.”
“ 그럼 빵을 사는 사람에게 주는 건가요 “
“ 매대에 따로 수북이 쌓인 빵을 보며 나는 말했다 “
“ 빵도 무료예요 그냥 드시면 됩니다 “
“ 빵은 일일 식품이라 어제 만든 빵은 오늘 팔지는 못해요 “
“ 그래서 버릴 수는 없고 그냥 드시라고 놔둔 겁니다 “

나는 소보루 빵을 하나 들고 한 입 베어 물었다.
깔끔한 머그잔에 커피를 가득담아 그녀가 건넸다.
오랜만에 마시는 커피는 정말 향기로웠다.

진정한 자유 란 무엇인가?

KTCR
한국기술융합연구소(주)
Korea Technology Convergence Research ltd

자유 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

“ 맛있네요 ! “ 내가 무심코 말을 했다.
그녀는 나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초승달 같은 짙은 눈썹과 가지런한 하얀 이가 아름다웠다.

그날 이후 나는 가끔 커피를 얻어 마시고 또 일을 마치고 귀가길에 녹두전이나 만두를 사서 건네었다.

대구를 떠나기 전 근처 성당에서 새벽미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그녀를 보았다.
그녀도 천주교 신자 였다.

“ 저 내일 여기 떠납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 어디로 가는데 예”
“ 글쎄 아직 정해진 데는 없지만, 여기일도 끝나고 해서 다른 곳으로 갈려고요 “
“ 그럼 우리 식사라도 같이 해요”
근처 곰탕집에 마주 앉았다.
곰탕이 나왔다. 뽀얀 국물에 파를 듬뿍 넣고 밥을 말아 먹을 때 까지 우리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국물만 몇 숟가락 뜨고 깍두기만 젓가락질 했다.

진정한 자유 란 무엇인가?

자유 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

중고 스타랙스에 짐을 싣고 떠나기 전 그녀의 제과점에 들렸다.
그녀는 쇼핑백을 하나 건넸다.

“빵하고 보온병에 커피를 좀 넣었어요 가시다가 드세요”
모퉁이를 돌 때 까지 사이드 미러에서 그녀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게 벌써 2년 전 이었다.

“ 아니 어떻게 여길 오셨어요 “
그녀는 언젠가처럼 초승달 같은 눈썹을 더 동그랗게 말아 올리며 환하게 웃었다
“ 드디어 찾았네요. 매 달 하루씩 시간을 내서 강원도 현장을 다 뒤졌어요. 아저씨 찾으려고 “
그는 쇼핑백을 내 밀었다.
패딩 점퍼와 내복 두벌이 들어 있었다.
대구 갈 막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서둘러 그녀를 태우고 횡성 읍으로 나갔다
터미널 부근에 한우 집에서 마주 앉았다.
“ 횡성 한우 맛있습니다. 드세요 “
하지만 그녀는 몇 점 먹지 않고 그냥 파 무침에 젓가락 질만 했다.
그 언제인가 처럼

진정한 자유 란 무엇인가?

자유 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터미널 벤치에 앉아 커피를 한 잔 뽑아 그녀에게 건냈다.
고개를 숙이고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던 그녀가 얼굴을 들어 말했다.

“ 여기 공사는 11월 초 되면 끝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내년 3월 말이나 다시 시작한다고 “
그렇다 토목 공사 특히 댐 공사는 11월 4일 이면 차수 준공을 하고 이듬해 3월 27일 부터 다시 시작한다
“ 긴 겨울 동안 어디 가시지 말고 대구 오세요 “
“ 요즘 대구에 일거리가 많아요. 먼저 같이 일하던 분들이 아저씨 이야기 많이 해요 “
“ 오시면 숙소는 구해 놓을게요”
이윽고 버스가 오고 그녀는 탔다
창가 자리에 앉아 그녀는 나를 내려도 보았다
창에 입김을 불어 무언가를 쓰려다가 황급히 지웠다.
그렇게 버스는 떠났다.

그해 겨울 나는 대구에 가지 않았다
긴 겨울을 혼자 숙소에 남아 현장을 지켰다.
함바집에서 남겨 논 김치 한 독과 소주 한 박스
바람과 눈과 얼음의 계절에 다섯 마리의 개와 함께
홀로 겨울을 보냈다.

진정한 자유 란 무엇인가?

자유 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

나는 그 때 깨달았다

절대의 고독은 완전한 자유라는 것을

나는 그 4개월 동안 더 없이 자유로웠다.

다시 사회에 돌아왔을 때 나는 자유롭지 못했다
그래서 가끔 그 때를 그리워 한다.

그런데,

진정한 자유 란 무엇인가?

☞ 남이 나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든 마음에 두지 않고, 남이 나를 싫어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어. 자유롭게 살 수 없지

내 막내 딸은 전문직이다
에니매이션 고등학교를 나와 대학도 에니매이션을 전공했다.
졸업 후 고액의 연봉을 받고 카카오에 입사했다

아파트를 하나 사서 따로 나가 산다
가끔씩 밥이라도 같이 먹으려면 3주전에 예약해야 한다.

제법 예쁜 얼굴인 데도 화장 하는 걸 못 봤다
단발 머리에 항상 같은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

진정한 자유 란 무엇인가?

자유 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

어느 날 저녁을 먹으면서 내가 말했다.
“옷도 좀 잘 차려 입고 신발도 예쁜 것 신고 다녀
아빠가 사줄까?”

딸은 말했다
“ 다른 사람은 내가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 그걸 네가 어떻게 알지 ?”
“ 내가 그걸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요”

어쩌나, 이러니 생전 연애를 못하지
이러다가 시집이나 가려는 지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 있다.
내가 횡성 댐 현장에서 긴 겨울을 보내며 얻었던 자유를
이 아이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도 누리고 있다는 것을